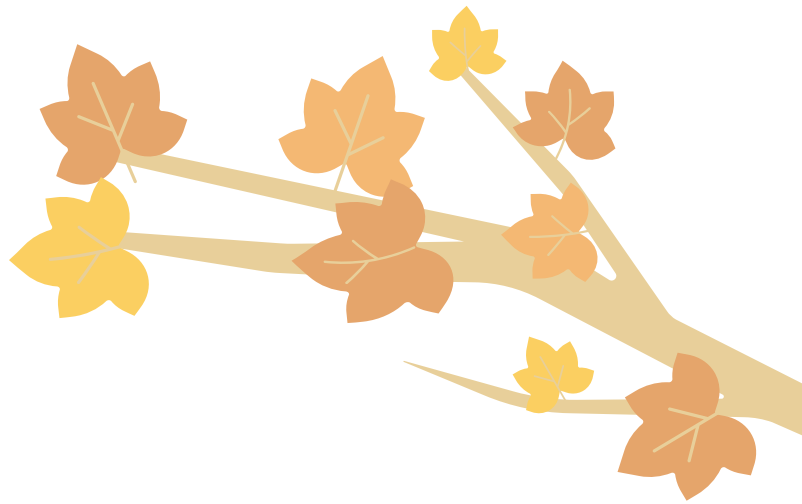


# 매일 만나

2022. 11.

디모데전후서, 에스더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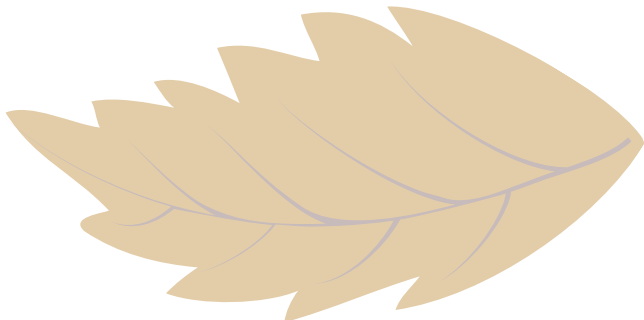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022

1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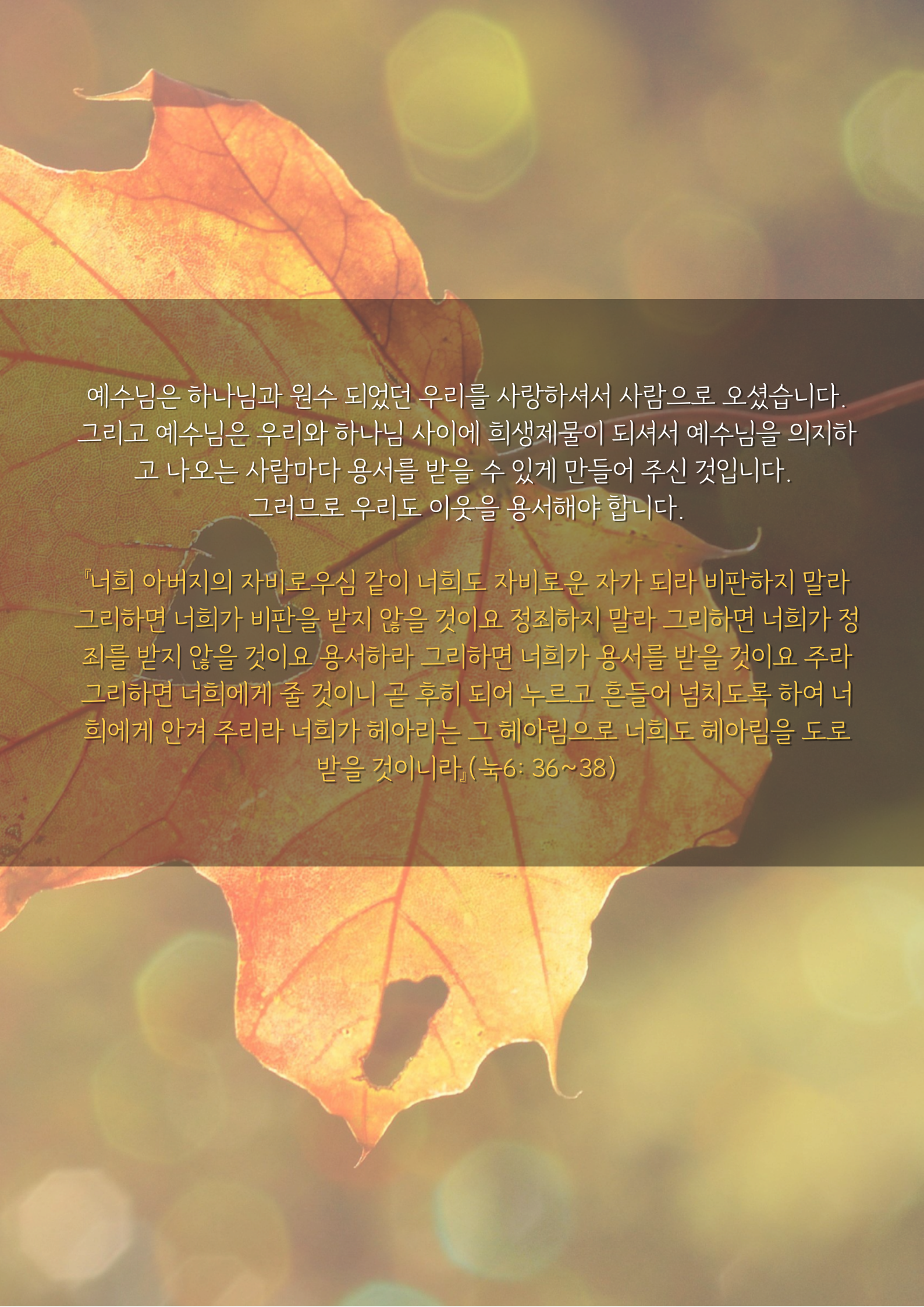
# 행복하게 하는 복음

## 〈용서의 힘과 영향력〉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용서할 때 원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미국의 성공학자 앤드류 카네기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순간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으면 위장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  
고 나오는 사람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  
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  
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 36~38)



*Holy Bible survey*

# 디모데전후서

안광모 목사

디모데전후서는 교회가 아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서신으로 분류되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목회를 위한 조언을 담아 보냈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동역자였다.

## 1. 바울과 디모데

두 서신의 수신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새로운 가족이었으며 선교 동역자이며 삶의 동반자였다. 바울은 디모데는 '신실한 아들'로 언급했고 디모데 역시 바울을 도와 마게도냐와 베뢰아 지역의 선교에 동참했으며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바울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냄을 받고 그곳 성도들을 견고하게 한 후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일했고, 사도바울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특별 임무에 동참하기도 했다.

## 2. 디모데전서의 세 가지 내용

이 편지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다. 크게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고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신앙이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임명한 직분의 선결사항과 역할에 대한 지침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과 남녀 집사의 직무에 대한 것이다.

첫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거짓교사들의 특징들과 함께 언급한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기억을 회상하면서(딤후 1:15), 자신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변화되었고, 박해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복음을 깨달았으며,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율법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기술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대항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수된 기독교 진리를 잘 수호하라고 당부한다.

거짓 교사들은 금욕을 위해 결혼을 금하고, 음식에도 불필요한 금기 사항을 설파하며, 족보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거짓 지식으로 자기 지식의 우월함을 주장할 뿐 아니라 경건을 소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함으로써 파멸에 이른다. 추측하기로 그들은 유대교와 관련된 자들이거나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으나 유대교의 내용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모두 진리를 왜곡하므로 그들에게 대항하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사역에만 열중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둘째,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주요 지침을 디모데에게 가르친다.

이 지침은 기도와 예배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강조하는 기도는 중보를 위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이는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믿음은 일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중보 기도는 남녀 모두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여자는 정숙함과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예배를 드릴 때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데, 특히 예배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온전히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셋째, 교회의 직분에 대한 자격을 가르쳤다.

디모데전서는 교회 안의 질서와 체계에 대한 지침을 강조한다. 감독의 자격을 언급하는 이 부분은 목회 지침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말한다. 다른 서신에서 강조하지 않은 직분에 대한 언급은 오늘날 목회 현장의 지침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녀 집사의 직무에 대해 교훈하는데, 직분에 대한 세밀한 언급과 강조는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 3. 디모데후서 개론

이 서신은 앞의 서신에 비해 독립적으로 보낸 인상이 짙다. 헨들리 모울 주교는 ‘눈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읽기 어렵다고 고백했다. 바울은 쇠약한 몸으로 로마의 어둡고 습한 감옥에 갇혀 있다. 죽지 않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는 사도로서 노력이 끝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사라진 후 믿음을 위한, 특히 그것을 미래 세대에 전달해 주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엄숙한 명령을 보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추측하기로, 당시는 바울의 순교와 연결되는 시점일 것이다. 그곳에서 바울은 종말에 대한 경고와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지시한다.



먼저 디모데에게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스스로 잘 지켜 복음선포에 담대할 것을 명령한다. 1장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이런 권면에 앞서 편지의 저자와 수신자인 디모데를 서두에서 생생하게 소개하여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한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부르며 자신을 소개한다. 즉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들로 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과 목적을 상기시킨다.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은 하나님이었으며 목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다른 곳에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고전4:17)’이라고 부른다. 아마도 디모데가 회심하는 데 그가 인간적 도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책임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복음을 전파할 의무, 복음을 위해 고난 받아야 할 의무, 복음을 지켜야 할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용감히 고난 받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장에서 해설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임무였다.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독교의 전통을 기억하고 사수할 것을 당부한다. 매우 논리정연하게 구원론적 기독교론을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것, 온전한 경건에 이를 것,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한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특이한 점은 믿음의 성격이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3장은 종말의 현상을 지적하면서 시작한다. 거짓교사들은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과 돈을 사랑하며 부모에게 예를 벗어나 행동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연약한 여인들을 미혹하는 바람에 죄를 쌓게 하고 열심을 갖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해 준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수받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사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절박하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라고 거듭 권고한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순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예감한 듯하다. 특히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리 평안하지 않음을 기술한다. 함께 사역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것과 디모데를 부르면서 누가만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상황을 보아 말년을 바라보는 바울의 쓸쓸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의 악행과 복음의 능력을 기술하고 안부의 말과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끝맺는다.



## *Holy Bible survey*

# 에스더

한성훈 목사

### 1. 저자

본 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만한 증거는 없으나 어떤 역사가(Josephus)는 모르드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10:2, 3 볼 때 신빙성이 없다. 또 에스라를 저자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주된 사상인 성별된 선민 사상과 에스더서가 나타난 사상은 차이가 있으며, 단어나 문체에 있어서도 에스라가 쓴 책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본 서의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저자는 페르시아에 있었으며, 주전 5세기 후반에 살았던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저작연대

에스더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이든간에 그는 바사 제국의 관습과 바사의 언어 그리고 왕궁과 궁전의 배치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개에 의해 쓰여진 기록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역대 일기를 적어도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이 에스더에 나오는 몇몇 사실들의 근거가 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예2:23; 예6:1; 예10:2). 또한 그는 수도 수산에 있는 바사의 지도자들의 모임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잘 알고 있었으며, 에스더서의 끝에서 독자들이 그 이상의 사적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요한 전기인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를 언급하였다. 에스더서의 사건들은 시기적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즉 에스라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B. C. 538-516년과 B. C. 457-444년에 걸쳐 일어난 이야기이다

### 3. 주요사상

본 서는 많은 세월에 걸쳐 윤리적인 면에서 공격을 받아 왔다.

왜냐하면 본 서의 내용이 신약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유대인의 적들에 대한 학살 사건이 잔인하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누구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야 하며, 특히 선택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축'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의 신앙적 표현(예4:12-14; 예6:1)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서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은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 01

화요일

## 이 교훈의 목적은

딤편전 1:1-11

새찬송가 199장

- 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 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 3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 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 5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
- 6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 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 8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 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 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 11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말씀 암송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8)



## 본문설명

디모데전서는 목회 직무(Ministry, 1~3장)와 목회자(Minister)의 자세(4~6장)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목회자의 본질적 직무에 대해서와 사역 현장에서 적용될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들을 교훈하며 하나님의 집(God's Household)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the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Truth)인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목회자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와 같은 자로 하나님의 집에 속한 권속들(성도)을 섬기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 1~11절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하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편지로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이단자들의 영향력을 봉쇄하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도록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냄으로 인류 구원의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관계, 참 믿음으로 맺어진 교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이 관계를 끊으려 공격해오는 사탄의 꾀계, 이단의 미혹에 교회와 성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임할 당연한 의무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복음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Q**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02

수요일

##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편 1:12-20

새찬송가 205장

-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 20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18)



## 12~20절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회심 전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핍박자요 훼방자였으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인내와 무한하신 은혜 속에 직분자로 세움받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직분자는 충성스럽게 직무를 감당하여야 합니다.



직분을 섬김에 더욱 노력하고 도전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Blank yellow rounded rectangle for writing the answer.

# 03

목요일

## 모든 사람을 위하여

딤편 2:1-8

새찬송가 300장

-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노고와 감사를 하되
-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 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 암송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왕상 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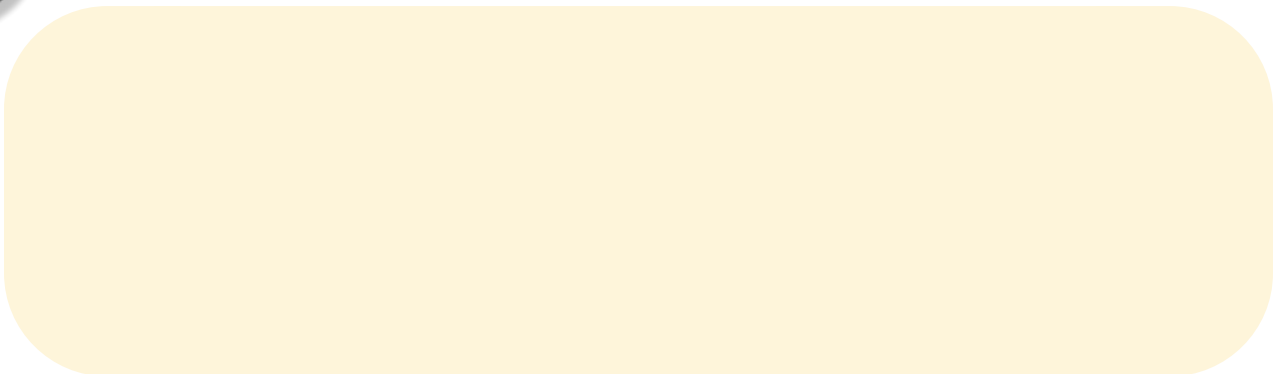


## 11~20절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바울은 목회 직무의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1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간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탄원이며, 기도는 성도가 일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로 모든 형태의 경건한 아뢰임입니다. 또 도고는 청원, 간구의 의미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이며,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의 형식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모두 복수형으로 이러한 기도가 생활 가운데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성도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직분자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와 직분자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 04

금요일

## 조용히 배우라 조용할지니라

딤편 2:9-15

새찬송가 400장

- 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땃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 10 오직 선행으로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 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암송

오직 선행으로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딤편2:10)



## 9-10절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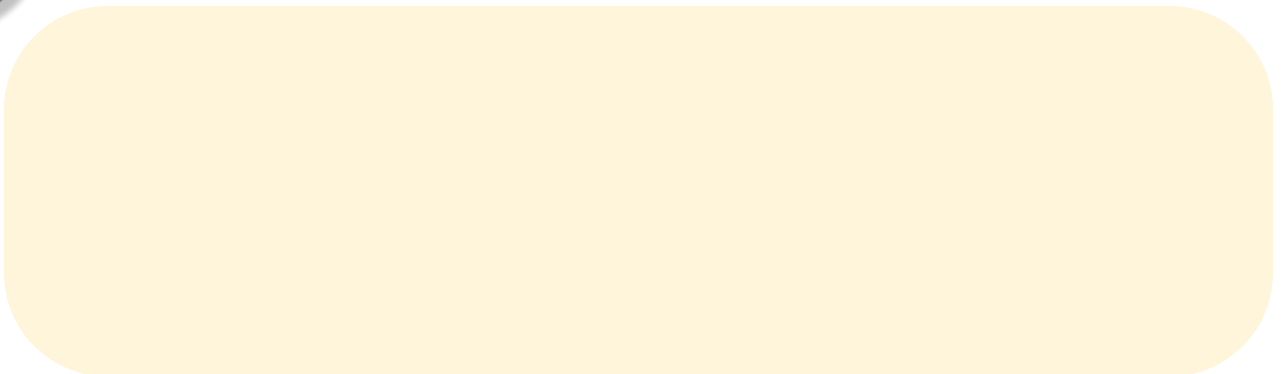
사도 바울은 남자들이 공중 예배에 참석 할 때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똑같이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공중 예배에 참여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곧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딸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깨끗하고 품격에 맞는 옷, 하지만 너무 초라하지 않은 수수한 옷을 입고, 남 앞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며, 모든 불순한 욕정과 욕심을 버리고 항상 깨끗하고 순수함을 지니도록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여자들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화려함에 더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남들에게 자기의 겉모습을 자랑하기 위하여 머리를 손질 한다든지 보석으로 치장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 11-14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합시다

여자들은 일체 순종하므로 종용히 배우라 하십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조용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여자들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하심으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려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있습니까?



# 05

토요일

##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딤편 3:1-7

새찬송가 428장

- 1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말씀 암송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딤편 4:15)



## 2-7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

감독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먼저 없어야 합니다. 곧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여, 자기감정, 자기 욕망인 물욕, 명예욕, 성욕 등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둘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근신합니다. 곧 자제하여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삽니다. 구타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감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훌륭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림은 교회를 다스림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중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먼저 가정에서 아내와 사이가 좋고, 자녀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이 없기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교만하기 쉽고, 세상 사람들로 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여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나눠봅시다?

# 06

주일

##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딤편 3:8-13

새찬송가 502장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 암송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  
서라 (디모데후서 3:5)



## 8-10절 집사의 자격

집사는 처음에 봉사의 직분으로 생겨났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조직과 체계를 세워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일곱 명의 신실한 성도들을 집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교회 밖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구제 활동을 벌이는 봉사의 직분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깨끗한 양심을 갖기 때문에 정중할 수 있습니다. 일구이언하지 않습니다. 술에 인박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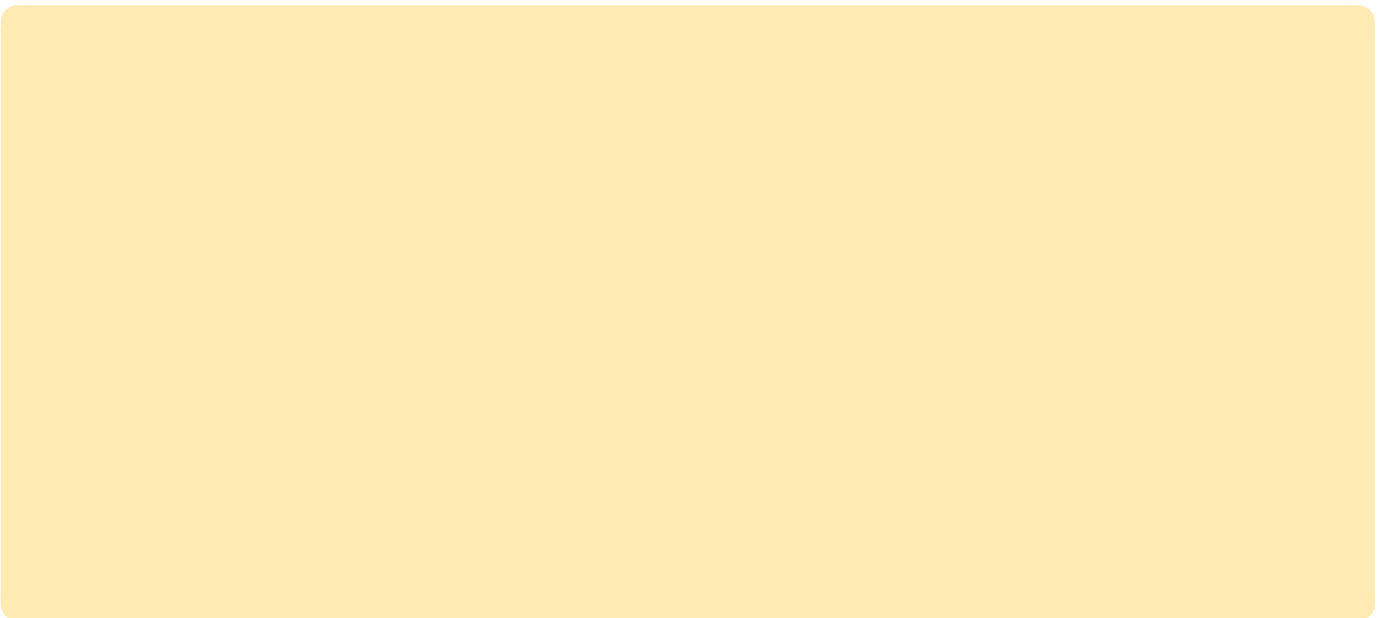
## 12-13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집사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성실히 직분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 신앙이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큰 담력을 얻게 되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됩니다.



집사 직분에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봅시다.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07

월요일

##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딤편 3:14-16

새찬송가 528장

14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말씀 암송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7)



## 14-16절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합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신을 기록한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말로써 충고하였던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용어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신앙이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기에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신앙이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을 말씀합니다. 또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형성된 무리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께서서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그 터 위에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세워진 성도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께서서 세워주신 진리의 터 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들인 가운데 신앙이 지속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 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연습되고, 습관화 되어져, 체질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 다 하도록 변함없는 신앙이 지속되도록 경건의 연습을 지속하도록 합시다.



**Q** 경건의 연습을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08

화요일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딤펴전 4:1-5

새찬송가 298장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암송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딤펴전4:4)



## 1-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짐이라

1절의 '후일'은 주님의 성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때 믿는 자들 중에 활동적인 믿음과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1절) 즉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당시의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피조물이 악하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이나 음식이 악하므로 멀리해야 한다고 잘못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금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3절). 영지주의는 육신을 영을 가두는 감옥으로 여기고 혼인이 육신의 계속적 증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쳤습니다(3절). 이는 구약성경의 음식 규례를 계속 지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제사와 음식규례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바울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4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더이상 음식과 성에 관해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는 음식과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삶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함을 뜻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향유해야 합니다.



**Q**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 안에서 사용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09

수요일

##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딤편 4:6-16

새찬송가 285장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둔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말씀 암송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딤편 4:15)



## 6-10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군이 되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영지주의의 산물로서 신들의 족보와 자세하게 늘어놓는 신화에 대한 사변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론들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에 임하듯이 자신을 훈련 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체의 연습과 경건을 대비 시킵니다. 육체의 연습은 제한적인 유익을 주지만 경건의 연습은 무한하고 영원한 유익이 됩니다.

## 11-16절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의 나이는 30-35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으로 그의 목회사역이 지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12절)'입니다. 자기의 믿음과 말에 대하여 일치되는 것은 자신의 지도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바르게 전함으로서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운명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본분이었고 그의 목회사역이 존중받는 길이었습니다(15절).



**Q** 성도의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 10

목요일

##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딤편 5:1-16

새찬송가 387장

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3.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7.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11.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3.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 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4.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 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딤편5:7)





## 1-4절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꾸짖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되며 해야 할 말을 할 때는 요청하고 권고하는 형태로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했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이상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말이 아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 5-16절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중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던 '과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과부란 남편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부는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하고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해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했고, 주야로 기도해야 했으며, 선한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자신만을 돌보기에도 힘겨워 보이는 과부에게 너무 과중한 일들이지만 교회가 인정하는 과부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Q** 나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나요?

# 11

금요일

##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딤편 5:17-25

새찬송가 200장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말씀 암송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딤편5:20)



## 17-25절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 중에 장로의 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할 정도를 벗어날 때의 처리 방법과 그런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솔히'라는 말은 '성급히', '서둘러'라는 말입니다. 즉 직분을 받을 사람이 직분에 걸맞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둘러 성급하게 안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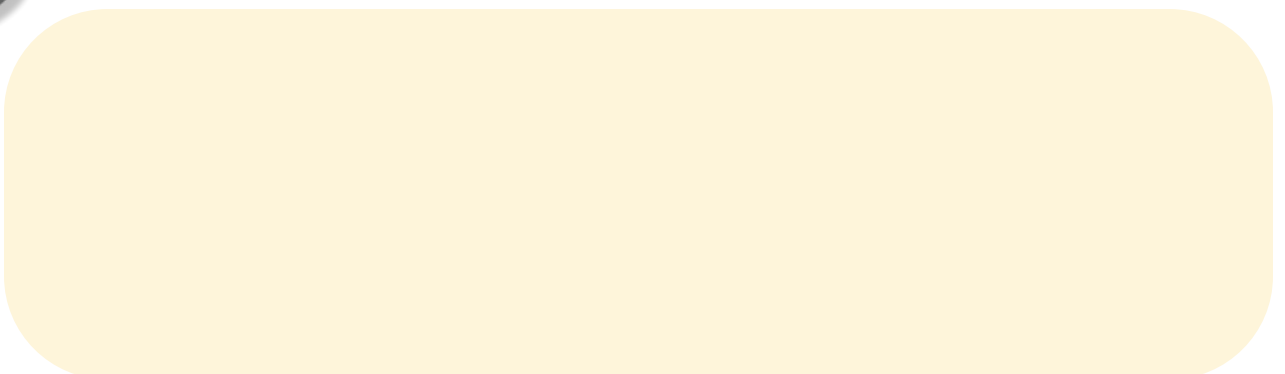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경솔히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직분자는 경솔하게 안수해서도 안되며 이미 안수받은 직분자를 경솔하게 정죄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장로의 송사에 대해 누가 보아도 합법적인 '두 세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판결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편견은 선입견을 의미합니다. 즉 판단하는 자의 선입견이나 성향에 따라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드러난 죄는 확실히 꾸짖어야 합니다. 똑같은 범죄가 되풀이되거나 다른 사람이 따라 행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Q** 죄를 다루는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 12

토요일

##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딤편 6:1-10

새찬송가 214장

- 61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62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육백사십이 명이요  
63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64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5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6 온 회중의 합계는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67 그 외에 노비가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이 있었고  
68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요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요  
69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였느니라  
70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천 드라크마와 대접 오십과 제사장의 의복 오백삼십 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71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이천이백 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72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이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육십칠 벌을 드렸느니라

말씀 암송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편 6:10)



## 1-2절

바울은 본문에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현존하는 제도 아래에서 믿는 자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3-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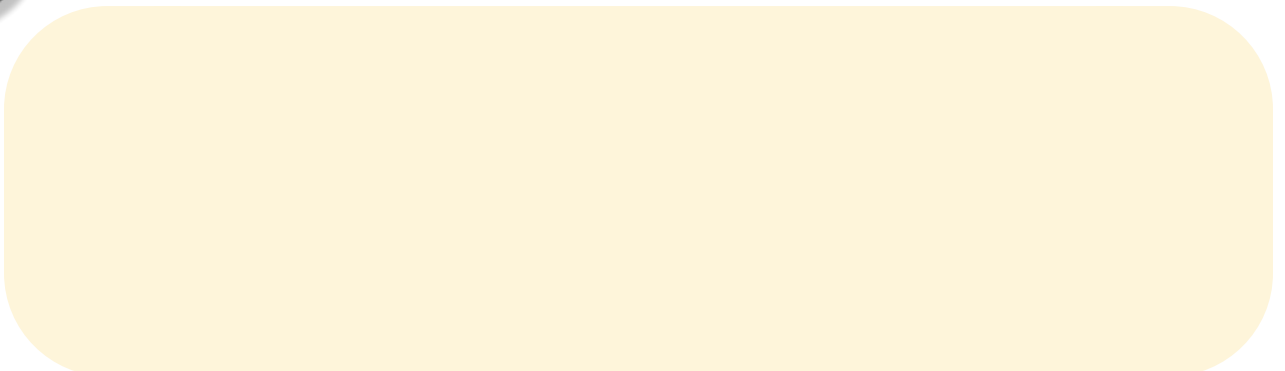
본문은 이단의 외형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하고, 실생활보다 변론에 치중하며, 사람들의 칭찬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 6-10절

바울은 실생활의 최저 한도로 만족할 줄 아는 자세를 견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멸망이 따를 것입니다.



1. 상전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2.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13

주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딤후전 6:11-16

새찬송가 301장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 암송**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딤후전 6:11-12)



본문이해

## 본문설명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싸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고니주"는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상은 곧 영생을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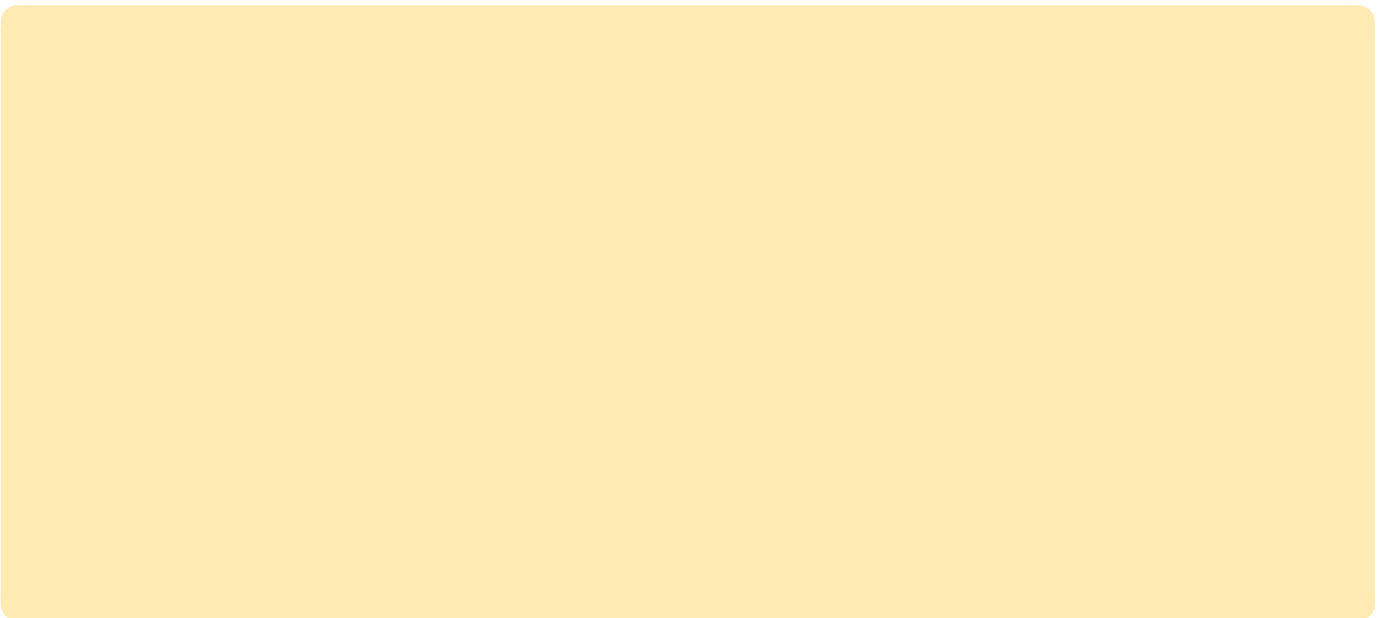
적용질문



1.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말로 설명해 보자
2.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는 말씀을 접하며, 타종교와의 차별성을 이야기해 보자.

Blank area for writing answers to the application questions.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14

월요일

## 이것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딤후 6:17-21

새찬송가 401장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0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딤후 6:17-18)



## 17-19절

본문은 부자들의 섬김이나 일시적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부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재물은 선한 사업을 하거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20-21절

생명을 주는 복음의 진리와는 무관한 거짓된 지식, 곧 당시 에베소 교회에 존재하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업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15

화요일

##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딤후 1:1-14

새찬송가 430장

-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 3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 4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 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 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 8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 12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 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 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 암송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딤후 1:12)



## 6-14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비방과 진리의 왜곡, 어린 나이, 육체적으로 병약함 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9절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13-14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바른 말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바른 말은 바른 삶과 올바른 신앙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바른 진리를 가리킵니다.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복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or reflection.

# 16

수요일

##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훈을 베푸시옵소서

딤후 1:15-18

새찬송가 523장

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16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훈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8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공훈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살전1:4)



## 본문설명

본문을 보면 15절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바울의 지인들이 모두 자신을 버렸음과 그러한 자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8절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는 와중에서도 오네시보로 만큼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지런히 찾아와 위로하였음을 밝히면서 그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도록 주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체포되어 재수감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친분이 있음을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위험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네시보로는 감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매우 숭고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 17

목요일

##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딤후 2:1-13

새찬송가 293장

- 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 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엄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 8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 9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 10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 1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 암송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2:2)





## 본문설명

1,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복음 사역을 계승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3-6절에서는 사역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3가지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곧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좋은 군사의 비유는 주의 일꾼은 이 세상의 삶에 얽매어서는 안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의 비유는 마땅히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는 사역의 결실을 맺기까지 성실함으로 사역을 수행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미쁘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18

금요일

##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4-26

새찬송가 284장

- 14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 16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 24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 26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 암송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2:15)



## 본문설명

본문은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다양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하지 않기,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기,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무식한 변론하지 않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기 등입니다.

당시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단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불의를 행하며 변론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러한 이단들의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되며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단들을 경계하며 지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교훈들 중에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 19

토요일

##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딤후 3:1-12

새찬송가 384장

-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 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6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 7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 8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 받은 자들이라
- 9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 본문설명

본문은 말세에 사람들이 나타낼 도덕적, 영적인 타락을 상세히 예고하면서 그 때에 출현할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최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 본성과 종교적 경향이 복음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단이 더욱 역사하여 이단들을 통해 사람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파멸시킬 것을 경고합니다. '안네'는 '유혹하는 자', 암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들은 실제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문헌에서는 안네와 암브레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한 장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도록 하여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9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그가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겼으며, 박해를 받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견지심을 고백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박해를 피할 수 없지만 우리를 견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20

주일

##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 3:13-17

새찬송가 358장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 14-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속에서 자신과 같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오직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가운데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워 온 성경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가운데 거할 때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안전하게 인도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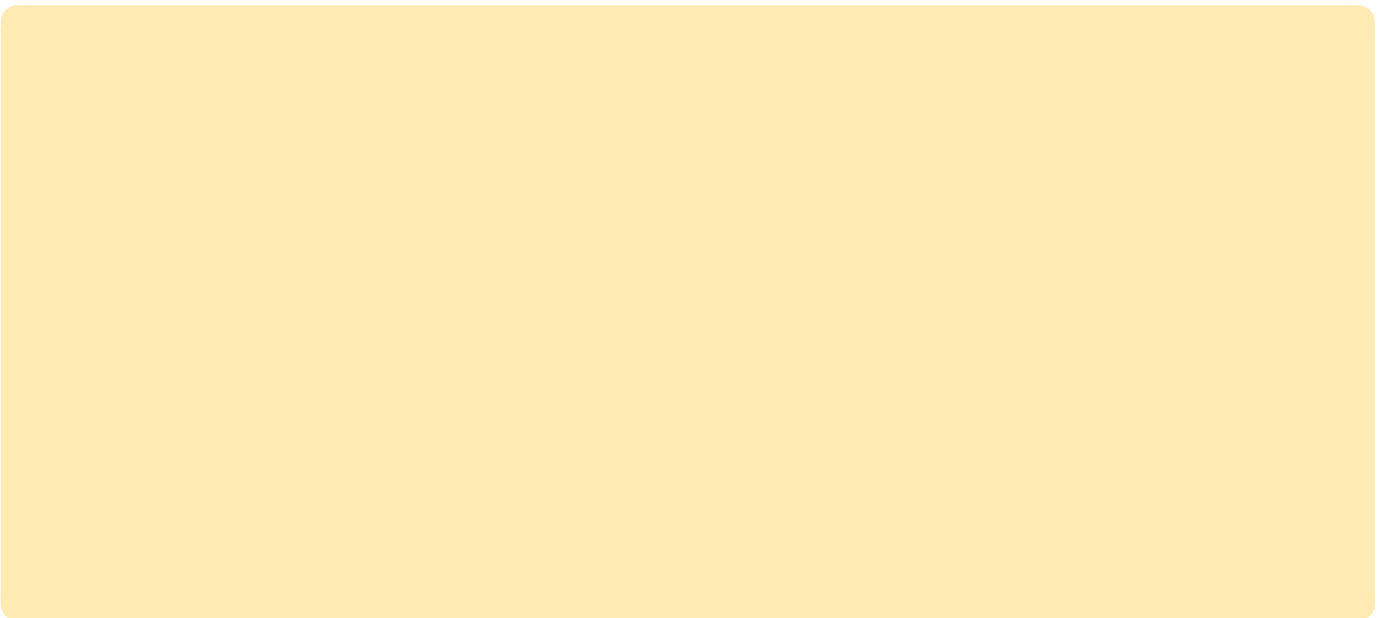
## 16-17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성경

바울은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성경 안에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따라서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삶이 되기 위해 오늘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21

월요일

##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직무를 다하라

딤후 4:1-8

새찬송가 202장

-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 암송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2)



## 4절 허탄

허무하고 허황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시24:3-4).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허탄한 목시를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가 멸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겔12:24).

## 6절 전제

구약시대 행해진 제사 방법 중 하나.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관계전도축제를 앞두고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봅시다.

# 22

화요일

##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딤후 4:9-22

새찬송가 218장

- 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21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22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딤후4:22)



## 9-15절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지해야 할 주님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명령합니다. 즉 마가를 데리고 오고, 복음을 대적한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명령합니다.

## 16-18절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주님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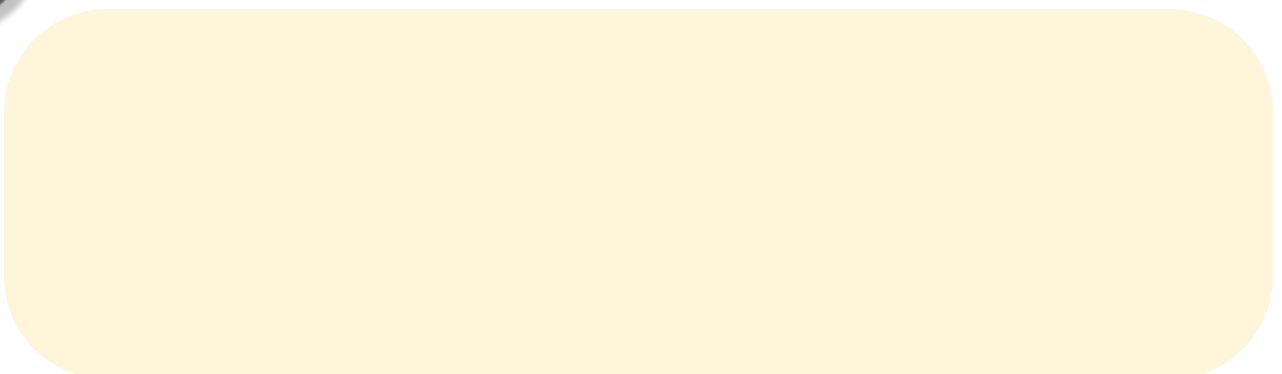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 받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견지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주님이 주신 힘과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 19-22절 끝까지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바울은 마지막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합니다. 또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올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디모데와 말씀을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뿐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모든 자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만나며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 23

수요일

##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베푸니라

에 1:1-12

새찬송가 302장

- 1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 2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 3 왕위에 있는 지 제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 4 왕이 여러 날 곧 백팔십 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 5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 6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깬 땅에 진설하고
- 7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 8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 9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 10 제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 11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 12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말씀 암송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잠14:3)



## 1-4절 지방관과 신하들에게 보인 왕의 권력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은 180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과시합니다. 특별히 지배 계층에게 잔치를 베푸는 모습은 왕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 5-8절 백성에게 보인 왕의 부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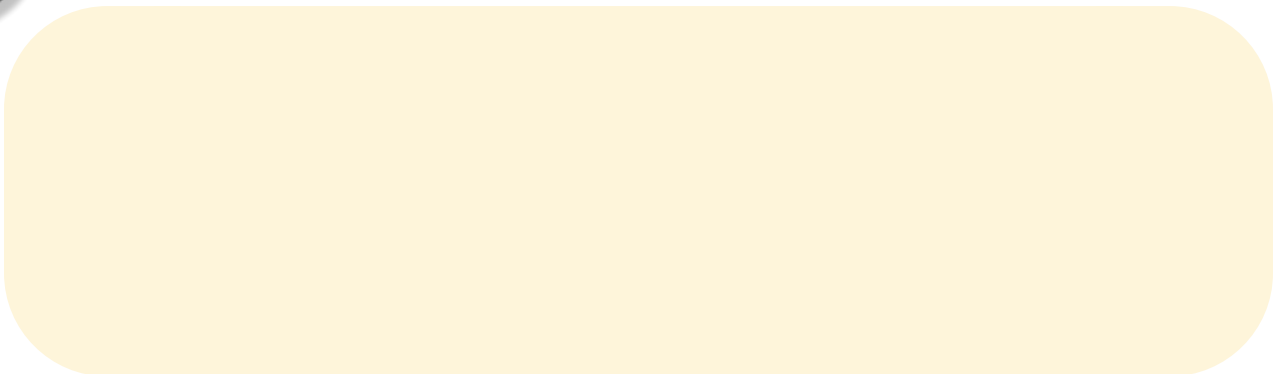
왕은 높고 낮은 모든 백성에게도 7일간 잔치를 베풀습니다. 왕궁의 후원 뜰에서 잔치가 열린 것을 통해 자신의 부요함을 못 백성에게 과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엄청난 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관대함까지 보였습니다.

## 9-12절 왕후를 통해 영광을 받으려는 왕

왕은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불러내어 사람들에게 보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왕이 자신의 권력과 부요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왕후까지 있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왕이 전치에 온 손님에게 보이고자 관료들에게 명령해서 왕후를 데려오라고 하는 모습은 정도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시사해 줍니다.



보여지고 나타냄으로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 24

목요일

##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에 1:13-22

새찬송가 405장

13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14 그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라)

15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어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16 므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 아하수어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18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19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0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21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므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22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말씀 암송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에1:19)





## 왕후 와스디의 폐위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가 명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왕은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이들은 과거의 역사와 관례들에 대해 잘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와스디가 왕명을 어긴 것은 큰 잘못이며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도 퍼진다면 백성들의 부인들도 남편들을 멸시할 것이라는 악영향에 대해 말하면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다른 왕후를 세운다면 왕의 권위가 세워지며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을 존경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왕은 이 말을 좋게 여겨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전 페르시아 지역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더의 초반부는 큰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와 나의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 25

금요일

## 그가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 2:1-18

새찬송가 435장

- 1 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 하거늘
- 2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 3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 4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 5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 6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 7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 8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니
- 9 헤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은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으레 주는 일급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 10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 11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 12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어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 13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 14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빔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 15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 16 아하수어로 왕의 제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타나
- 17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 18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말씀 암송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에2:17)



##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아하수에로 왕은 시간이 지나 와스디에 대한 화가 누그러들자 그녀를 폐위시킨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자문을 구해 폐위시켰지만 사랑하던 아내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왕후의 후보들을 관리하여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후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산 궁에 있던 유다자손 모르드개가 있었으며 삼촌의 딸 하닷사(에스더)가 부모를 잃어 자신의 딸처럼 양육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외모로 왕후 후보로 징집되었고 이 과정중에서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말하였고 에스더는 왕 앞에서 은총을 얻어 와스디를 이어 왕후가 됩니다.



**Q**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형통케 되거나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까?

# 26

토요일

##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에 2:19-23

새찬송가 526장

- 19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20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21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22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23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말씀 암송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2:20)



## 숨긴 사실과 밝혀진 사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종족과 민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촌 모르드개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문을 지키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논할때에 모르드개를 왕후 에스더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왕에게 아뢰므로 왕의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의 공적이 더 드러나지 않고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의 복선이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왕후가 된 이후에도 순종하는 에스더의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 27

주일

## 그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에 3:1-15

새찬송가 289장

- 1 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 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 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 4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 5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 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어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 7 아하수어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 8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 9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온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 10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 11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 12 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어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 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 14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 15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말씀 암송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어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에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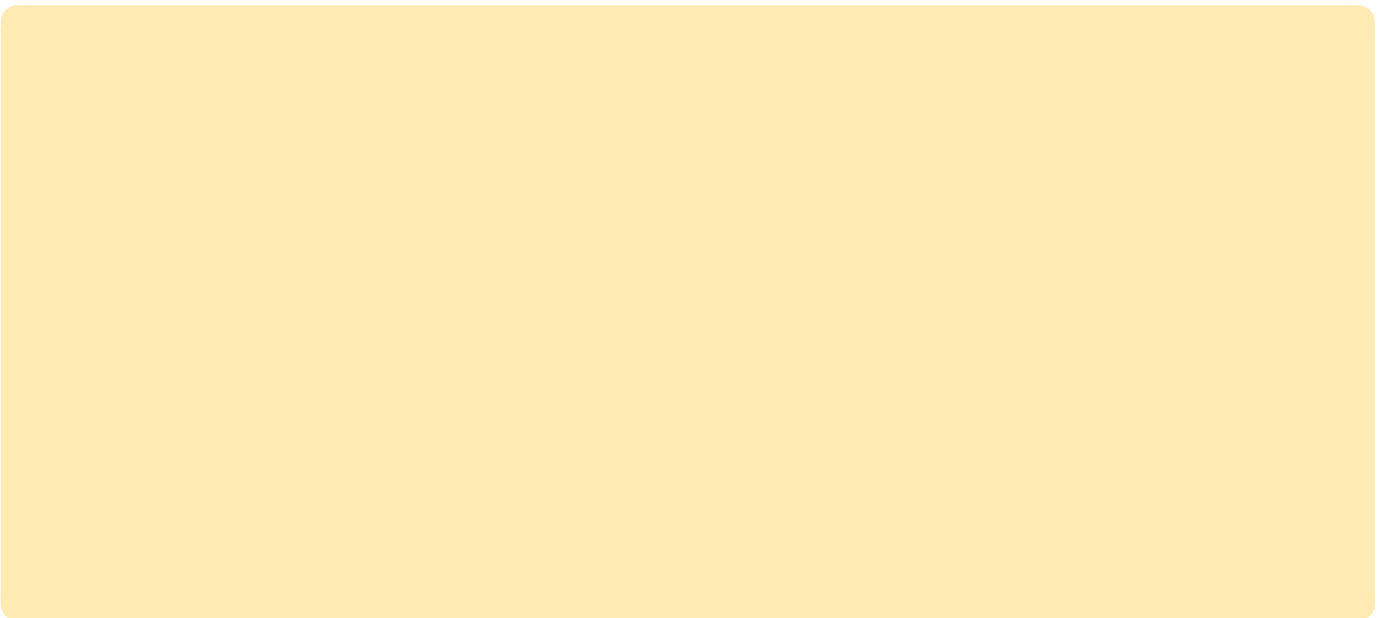
## 하만과 모르드개의 갈등

아하수에로가 신임하는 신하였던 하만이 있었는데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하였는데 모르드개만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날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을 권하였으나 모르드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렸는데 이는 하만이 아각 사람,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인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신앙적 신념에 따라 절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하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대 민족을 전부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워 왕의 조서를 반포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28

월요일

##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에 4:1-17

새찬송가 390장

- 1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 2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 3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 4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 5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 6 하닥이 대궐 문 앞 성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 7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 8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 9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 10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 11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하니라
- 12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 15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 17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



##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삼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은 그가 왕후의 자리를 이용하지도, 자기의 미모를 의지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여성의 몸으로 자기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미모 덕분도, 왕후라는 자리 덕분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 믿음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란 미모와 왕후의 자리의 힘으로써도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29

화요일

## 나무를 세우니라

에 5:1-14

새찬송가 204장

- 1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 2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 3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 4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 5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풀 잔치에 가니라
- 6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 7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 8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 9 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 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 11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 12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풀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 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 14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말씀 암송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에스겔 12:2)



## 선한 양심과 말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강포한 일로 이끄는 조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선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의 양심 상태가 심하게 파선되어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만은 자기가 죽게 될 나무를 손수 마련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만과 같이 양심이 훼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심하게 책망받고 나중에 멸망하게 된 것도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귀한 말씀, 선한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귀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리석고 허탄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라도 분별 능력을 상실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귀에 할례를 받아서 들어야 할 것은 반드시 듣고 또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걸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Q**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 30

수요일

##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에 6:1-14

새찬송가 412장

- 1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 2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 3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 4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 5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 6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 7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 8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 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 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 11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 12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 13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 14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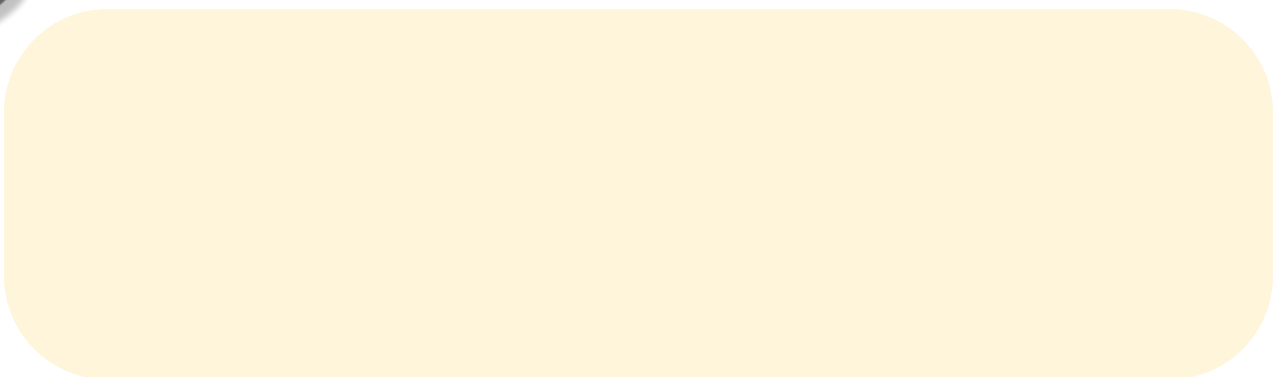
## 교만한 사람의 결과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 되묻지도 않고 속으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온 거리를 다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하만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수와 같이 여기는 모르드개가 그 영예를 얻었고 하만 그 자신은 말을 붙잡고 외치는 마부의 신세가 되어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교만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 결정적인 오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한 사람의 이 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섰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때가 가장 신경을 써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싹트고 있는 마음속 교만함은 없습니까?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 매일 만나

2022. 11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손아론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



